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2

VOL. 0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통상지원센터 박선민 연구위원

이유진 수석연구원

Content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요약	3
0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5
02.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추진현황 및 주요국 입장	12
03. 무역·투자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의미	20
04. 결론 및 시사점	29



요약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도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5월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이다. 또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약체가 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5개국은 참여가 확실시 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은 고려 대상에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과 인도의 경우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으나 중국의 입장 등 대내외 역학구도로 인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도태평양지역은 향후 경제·교역·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태는 전 세계 인구 중 35.2%, 세계 GDP의 44.8%, 글로벌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있어서도 인태 지역 비중이 4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이며, 인태지역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도 5.5%까지 늘어났다.

한편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인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에서 2020년 46%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세안 및 인도향 투자가 2015년 7.5%에서 2020년 19.3%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정체되는 추세(2020년 제외)임을 감안하면 아세안·인도 지역은 중국 대체 투자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향후 인구 및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으로의 교역과 투자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인태지역의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태를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태평양(Asia Pacific)’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Indo Pacific)’으로 확장되고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축적된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동맹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등 지역내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임기 후반 QUAD+ 와 EPN(경제적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태지역으로의 전략적 확장과 경제협력은 집권당과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경제·무역·투자 규모, 지경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對인태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접근 차원 보다는 공급망, 가치중심적 경제협력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1) 인도태평양 전략 개요

□ **美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정부의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

○ 보고서는 미국을 ‘인도태평양 세력(Indo Pacific power)’으로 명명하고 인도태평양을 ‘세계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규정

- 따라서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안보(security)’와 ‘번영(prosperity)’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자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

* 미국은 총 6개 관할 지역(인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지역사령부를 배치하였으며 이 중 인도태평양에만 지역 단위 전략을 수립

○ 미국은 중국을 인태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내 동맹국들간의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

- 중국의 ‘무력과 강압’은 호주와의 경제갈등, 인도와의 국경 분쟁, 대만 압박, 남중국해·동중국해 국가 위협, 인권침해 등을 야기했으며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들간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피력

* 단, 중국을 ‘기후변화 및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협조’가 가능한 국가로 언급하여 견제와 동시에 협력도 가능함을 시사

□ 보고서는 총 5개의 목표 「①자유와 개방(Free and Open), ②연결성(Connectivity), ③번영(Prosperity), ④안보(Security), ⑤회복력(Resilience)」를 통해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

○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진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는 역내 국가들의 자율성 보장, 해양, 항공, 기타 공역의 적법한 지배, 이동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 투명성에 기반한 가치 등을 추구

☞ 이러한 가치를 공유할 지역내 동맹국들과 연계(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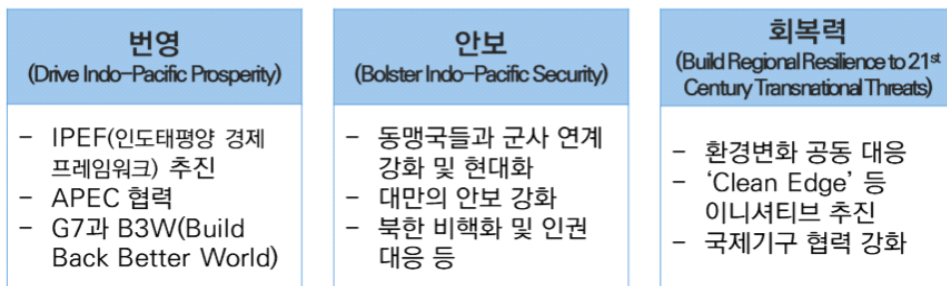
< 美인도태평양 전략 체계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역내 국가 정부들의 자율성 보장, 법치주의 확보, 정보/언론/미디어의 자유 보장, 지역의 개방성과 접근가능성 확보, 해상·상공의 국제법에 의한 지배

역내·지역외 연계(Build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지역 내 동맹 강화, QUAD 등 안보 파트너십 확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참조하여 작성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조

□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은 IPEF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공급망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다자간 협정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높은 노동/환경 기준 기반 무역, 디지털 무역 기준 마련, 공급망 안보 구축, 탄소절감·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추진
 - 특히 공급망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취임 첫해에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upply Chain, 2021. 2)', '주요 4대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보고서('21. 6)'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담(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을 개최함
 - 2022년 2월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조¹⁾
 - 이 외에도 G7국가들과 공동으로 3BW(Build Back Better World)를 발표하고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기반 투자 프로젝트 계획(2035년까지 40조달러)을 마련('21. 6)

1) 백악관, The Biden-Harri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Secure Critical Supply Chains in 2022 (2022. 2)

□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대상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만 및 아세안 국가들

- 인도태평양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양(Indian Ocean)과 태평양(Pacific Ocean)을 의미하나,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 해당 지역 및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의 관할지역을 반영(중국 제외)

- 특히 다음 국가 및 협의체들이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이 될 것임을 강조

구분	대상국가 및 협의체
동맹조약 체결국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지역내 주요 파트너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군도
동맹 강화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 QUAD(미국, 호주, 일본, 인도), AUKUS(호주, 영국, 미국)
아세안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존중하며 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연계

<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 >



* 출처 : 인도태평양 사령부

(2)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 과정

【오바마 행정부 (2009~2016)】

□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으로 미국 외교의 중심축을 재편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를 ‘첫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으로 명명하고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의 전략적 틀을 바탕으로 미국의 對세계 전략을 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재편, 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함²⁾
-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2015년 타결하였으며 이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상품 수출의 확대보다는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권 보호 강화, 환율 조정,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자유화, 국영기업 독점 철폐 등을 강조³⁾

* 참여국 : 美, 日,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트럼프 행정부 (2017~2020)】

□ ‘아시아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국 견제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인태 전략을 추진
 -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확장 개편(2018)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19. 6)」,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고서(‘19. 11)」를 통해 보다 구체적 전략을 공개
 -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주요 위협 세력(revisionist power)로 언급하고 본격적인 견제가 필요함을 제시
 - 2020년 5월에는 「대중국 전략보고서(US Approach to the PRC)」를 발표하고 중국을 동맹들과 연대로 압박해야 함을 명시(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언급)
- *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아프리카 개발 컨퍼런스에서 주장(‘16.8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미·일 공동의 구상으로 발전시킴⁴⁾

2) Kenneth G. Lieberthal, “The American Pivot to Asia”, Brookings 2011. 12. 21




3)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2018. 11. 14

4) FACT SHEET, 미국무부,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Advance the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분야 최대 성과 중 하나인 TPP를 탈퇴하고 양자간 무역 협정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미국은 2017년 TPP를 탈퇴하였으며 북미 FTA(NAFTA→USMCA) 및 한미FTA를 개정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QUAD 외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추가된 QUAD+ 를 제안하였으며 블루닷네트워크(2019)*, 경제번영네트워크(EPN, 2021)** 등 역내 경제번영을 위한 협의회를 추진
 - * **Blue Dot Network** : 호주,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인태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보이저 1호가 지구(Blue Dot)를 찍은 사진에서 명명
 -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 反中 산업공급망 경제블록.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참가를 요청

【바이든 행정부 (2021~)】

-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경제를 통합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22.2)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복귀하는 대신 IPEF를 중심으로 인태지역의 경제 협력을 추진 중

구분	내용
 <p>오바마 행정부 (2009~2016)</p>	<p>아시아태평양으로 전략적 기점 마련, TPP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2011) 및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Pacific, '15) 개념 정립 ▶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09), 동아시아정상회의 가입('11) ▶ 필리핀 방위협력 강화협정(EDCA) 체결('14)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지역내 경제 통합 추진
 <p>트럼프 행정부 (2017~2020)</p>	<p>인도태평양 개념 확립, TPP 탈퇴, EPN, QUAD+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발표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17.11, APEC 정상회담) - 인도태평양전략 프레임워크('18, 국가안전보장회의) -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19.6, 국방부)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고서('19.11, 국무부) ▶ 블루닷 네트워크(BDN, '19), 경제번영네트워크(EPN, '20) 추진 ▶ QUAD 결성('18) 및 QUAD+ 제안('20) ▶ 태평양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개편('18) ▶ TPP 탈퇴('18)
 <p>바이든 행정부 (2021~)</p>	<p>트럼프 행정부의 명맥을 이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 발표('21.3, 백악관) ▶ 3BW(Build Back Better World) 추진(G7 정상회의, '21.7) ▶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발표('22.2, 백악관)

United States' and Japan's Global Partnership", 2019. 5. 27

(3)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중

- 한국은 2017년부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를 미국과 체결(2019, 2020)하여 상호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2022. 2 제1차 한-미 동남아·태평양 정책 대화를 진행
- 중국은 2013년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
 - 미국의 B3W(Build Back Better World)와 EU의 Global Gateway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성격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알려져 있음
- 아세안은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의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였고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중립적 입장을 추구
 - 핵심 개념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은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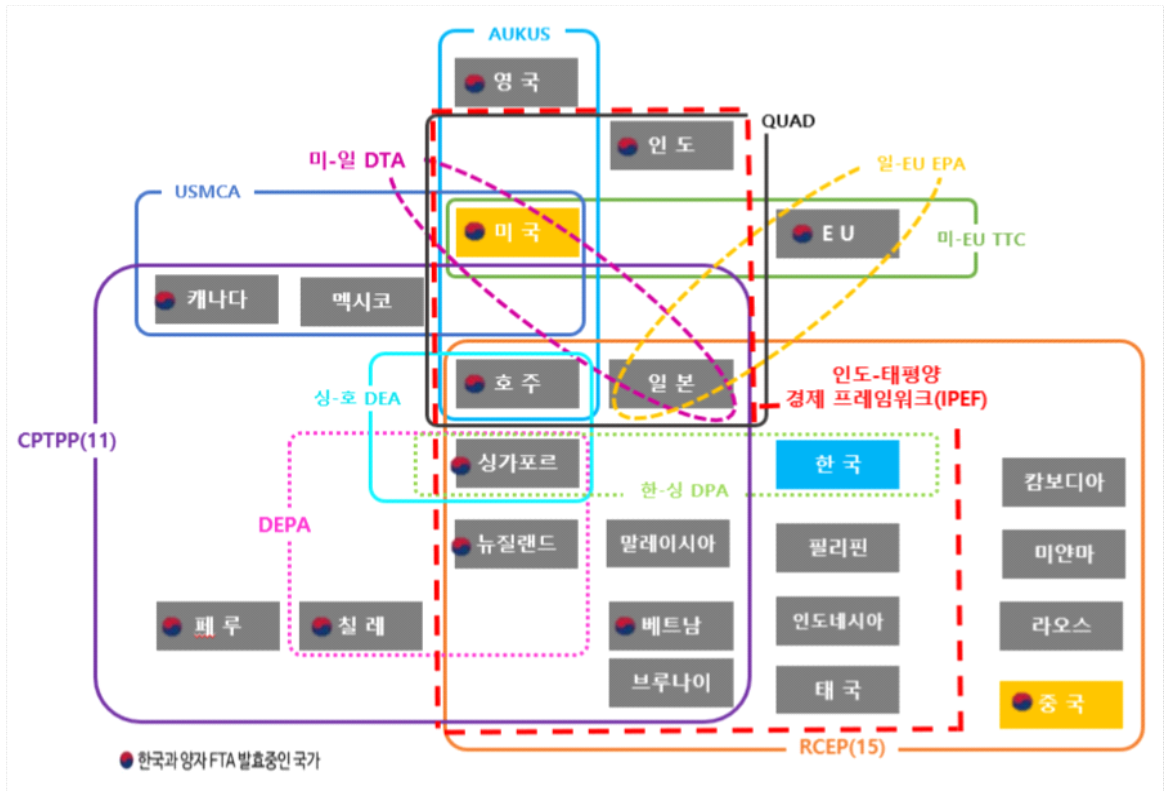
< 주요 국가별 對인도태평양 정책 >

국가/연합	주요 정책	내용
한국	신남방정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인도와 정치·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함 ▶ 한-미간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설명서」 체결(2019, 2020), 정책 대화 추진
일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사이의 경제성장 도모, 자유 무역과 인프라 추진, 안보 협력
EU	인태지역에서의 EU 협력전략 (2021) Global gateway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태 지역에서 경제, 해양, 안보 등 분야에서 EU의 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증진 추구 ▶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2027년까지 3천억 유로를 투자
아세안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AOIP)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의 해양, 경제 협력 등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표명 ▶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강조하고 대립이 아닌 협력과 대화를 추구 *이에 대해 미정부도 지지를 표명
중국	일대일로(BRI)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해상기반 무역망(실크로드)을 개척하고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 중국은 미국의 무역 협정 공백을 기회로 RCEP, CPTPP를 통한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 미국이 TPP 탈퇴 이후 CPTPP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RCEP이 2022.2월 타결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경제 블록을 구성
 - 중국은 CPTPP에도 가입을 신청하였으며(‘21.9).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21. 11)
 - * CPTPP :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18.12.30 발효
 - ** RCEP :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22.11 발효(우리나라는 2월 발효)
- 미국이 CPTPP 복귀 대신 추진 중인 IPEF가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제외한 대신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포괄적 협정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전통적 통상협정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노리는 반면 미국은 새로운 통상질서 확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 역내 주요 경제·안보 협의체 역학 구도 >



2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현황 및 주요 국가별 입장

(1) IPEF 개요 및 추진 현황

- 미국은 새로운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 기반 마련
- `21.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언급 후 동맹국들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
 -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약체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예정

< IPEF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뿐만 아니라 여러 의제들을 포괄하는 경제 협력체제 •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적 동맹체제 구축하기 위한 목적 *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약체가 될 것으로 예상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
논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기술 규범,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 등 *market access는 포함되지 않음
담당 부처 및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 ①공급망 회복탄력성, ②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③세제/반부패 • USTR : ④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노동, 환경, 농업, 무역 원활화 등)
대상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후보로 거론
주요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IPEF 첫 언급(`21.10, 동아시아정상회의) • 美대사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발표(`22.2) • 美하원 조세무역 위원회 청문회 개최(`22.3) • 연방관보에 public comment 요청(`22.3.15~4.11) • 공식 논의 출범(`22.5)

□ IPEF는 구체적 의제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추진 현황) 바이든 대통령의 첫 IPEF 언급 이후 美 정부는 지역내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중
 - Tai USTR 대표,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공식 방문('21.11) 이후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22.5)까지 참여 대상국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IPEF 논의
- (향후 일정) 5월(공식 협상 출범), 11월(중간선거)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CSIS 등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내년 APEC 정상회담 전후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제시⁵⁾
 -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중 IPEF의 공식 논의 출범이 예상됨
 - 중간선거를 앞두고 IPEF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 여부가 중요
 - * 미 상무부는 ①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통과, ②중국의 불공정 및 시장 왜곡 관행 견제, ③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내년도 2022년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⁶⁾

< 향후 예상 일정 >

- '22. 5 : 참여 대상국 최대한 확보, 공식 논의 출범
- '22. 11 : 중간선거(11/11) 일정에 앞서 구체적 합의내용 도출 등 가시적 진전
- '23. 11 : 미국에서 주최하는 APEC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안 도출

- (미국내 반응) IPEF가 상품양허(관세인하)를 반영하지 않아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다루지 않는 협정이 되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음⁷⁾
 -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22.3)
 -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 24인은 Tai 대표와 Vilsack 농림부 장관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 IPEF가 “의미있고 강제성 있는 시장접근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22.5)⁸⁾
 - Tai 대표는 전통적 형태(FTA)의 시장접근보다는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반영한 더 “진보된 형태의 시장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피력

5) CSIS Briefs.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2022. 4.11

6) 미 상무부,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M. Raimondo Highlights Key 2021 Departmental Accomplishments” 2021. 12. 22.

7) Inside US trade, “Tai defends IPEF approach as senators push on lack of market access”, 2022. 3.31

8) Inside US trade, “GOP senators to Tai, Vilsack: IPEF must include market-access commitments”, 2022. 5. 10

(2) 주요 국가별 상황/반응 및 참여가능성

□ 한, 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참가 예상, ASEAN 주요국은 검토중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당사국과 미국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음
 -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은 미국의 고려 대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 단, 브루나이의 경우 언론보도 내용 등을 반영 참가 불투명으로 분류
 - 대만은 인도태평양의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 국가이고 IPEF 참여를 적극 희망하지만 對中 갈등 촉발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신중한 입장
 - 인도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최근 러시아 제재 불참,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 도입 등 행보와 과거 협상 사례(8년간 협상 후 RCEP 미참여 등)를 감안할 때, 출범 시점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이 외에도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 멕시코는 참여 대상국이 아니지만 캐나다의 경우 IPEF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함



참가 확실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참가 가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참가 불투명	 대만	 인도	 브루나이		
고려 가능성 낮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멕시코

□ 국가별 IPEF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 해외 언론보도,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하여 저자 작성 (출처는 참고자료 참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당사국과 미국 모두 긍정적, 참여 확실시】

국가	진행 상황 및 반응
 한국	<p>한-미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신정부의 국정과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i USTR 대표 방한 및 IPEF 협력 방안 논의('21. 11) - Tai 대표-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회담 6회 개최 및 IPEF 논의('21.10~'22.3) - 산업통상자원부 IPEF 대응 TF 구성(2021. 12), 민관 TF 발족('22.3) 등 대응체계 마련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2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에서 IPEF 참여 언급
 일본	<p>미국은 일본을 IPEF에 필요한 핵심 동맹국으로 언급, 일본도 이에 적극적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과 Hagiuda Koichi 일본 경제산업상(METI)은 '일본-미국 상업 및 산업 파트너십(JUCIP)'을 발표하고 기후 변화, 녹색 에너지 개발, 디지털 및 첨단 기술 및 투자, 반도체 및 기타 필수 산업을 위한 공급망 등 IPEF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언급('21. 11)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바이든 대통령 비대면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을 IPEF를 위한 핵심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 기시다 총리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아시아에서의 이니셔티브 지원 약속('22. 1) -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Tai 대사와 Raimondo 장관을 면담하고 IPEF에 대해 논의. 일본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키자는데 데 합의했다"고 언급('22. 5)
 호주	<p>장관급 면담, 전략 대화(Australia US Strategic Commercial Dialogue) 등을 통해 상호간 긍정적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han 호주 통상장관 및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간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논의('21. 11) - Sarah Bianchi USTR 차관과 Tehan 장관간 IPEF에 대한 Biden 행정부의 비전 공유 및 최신 정보를 제공.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22. 3) - 제1회 호주-미국 전략적 상업 대화(Australia US Strategic Commercial Dialogue, AUSSCD)를 개최하고 Katherine Tai USTR 대표와 Tehan 장관과 면담을 진행.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된 의견을 반영하는 IPEF 추진을 위한 긴밀히 협력에 동의. 특히 디지털 경제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IPEF 추진에 대한 의견 교류 ('22.3)



 뉴질랜드	<p>IPEF을 통한 디지털 무역 협력에 높은 관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미국 상무장관 논의('21. 11) - Jacinda Arden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미국 비즈니스 정상회의(New Zealand-US Business Summit) 회원들을 위한 연설에서 IPEF 가입에 대한 관심 표명 * IPEF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미래 기준을 논의할 기회를 기대하며 기후 변화, 인프라투자 및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IPEF의 조항에도 관심 높음. 뉴질랜드 총리는 비즈니스 사절단을 6월중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 **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이 '21.1월에 발효
 싱가포르	<p>IPEF의 역내 확산에 가교 역할 기대 (디지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미국 상무장관 논의('21. 11)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바이든 대통령 회담을 통해 IPEF 추진의 공감대 확인. 디지털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세금 및 부패 방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22. 3) -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 USTR Katherine Tai 면담 추진. IPEF하에서 디지털 무역과 친환경 사업 등 협력 예정. IPEF의 지역내 확산에 기여할 것임을 동의('22. 4) * 2021년 10월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성장 및 혁신 파트너십(PGI)과의 시너지를 기대(PGI는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추진, IPEF와 유사) ** 싱가포르-호주,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싱가포르-한국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을 맺을 만큼 디지털 경제 협력에 적극적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 참여 가능한 아세안 국가】



국가	진행 상황 및 반응
 말레이시아	<p>IPEF 및 반도체 공급망에 높은 관심 표명, 참여 가능성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min Ali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USTR Tai 대표, Raimondo 마상무부 장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등과의 회담에서 IPEF에 대한 긍정적 참여 입장 밝힘('22.4~5) - 미국-말레이시아 반도체 라운드테이블 개최하고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논의 진행하였으며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체결('22.5) * 말레이시아 자체 외교정책 프레임워크 “Focus in Continuity: A Framework for Malaysia’s Foreign Policy in a Post-pandemic World('21.12)”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투자유치 등 방향성을 설정하며 이러한 방향성은 IPEF와 유사

 인도네시아	<p>전반적으로 참여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대내외 상황 고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IPEF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21.12) - Muhammad Lutfi 인도네시아 상공부 장관은 타이 대사를 면담, IPEF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22.5) -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중립과 시장 메커니즘 기반 접근 (political neutrality and a market mechanism-based approach)”에 따라 미-중간 중립적 입장을 지키려는 성향도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올해 11월 인도네시아는 G20를 주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초청할 계획임. 이러한 상황에서 IPEF 참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
 베트남	<p>IPEF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참여할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IPEF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극 협의 하고 있음을 언급. 그러나 참여 방법, 참여 수준 및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참여국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을 표명(`22.3) - 팜민찐 베트남 수상은 Tai 대사와 면담을 통해 IPEF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4개의 의제(pillar)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22.5) *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미-중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IPEF 참여시 에도 반중 협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
 필리핀	<p>전반적으로 긍정적 입장이지만 노동문제 및 정권교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Lopez 통상산업부(DTI) 장관과 Raimondo 미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IPEF의 참여의지를 밝혔고 중소기업 육성, 디지털경제, 공급망 회복, 환경 등 가치에 대해 공감한다고 표명 - 그러나 미국의 노동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s and Trade Policy)는 필리핀의 노동, 인권 현황이 IPEF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USTR에 전달(`22.4) - 또한 5월 9일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출마자였던 레니 로브레도보다 친중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IPEF 가입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태국	<p>태국내 정무적 상황으로 인해 IPEF 가입은 신중할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은 미국과 조약 동맹국이나 최근 태국 남부지역(빠따니, 알라, 나라티왓, 송클라 주)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분리 분쟁 관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피난민 보호 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이러한 접근은 태국의 군사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 있음 - 태국은 미국과 코브라 골드(Cobra Gold, 2022) 합동 군사 연습을 실시했으나 중국 인민군과도 셰어드 데스티니(Shared Destiny) 평화유지 훈련을 실시 할 만큼 미-중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 단, 태국은 2022년 APEC 정상회담을 주최하며 본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IPEF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음 (미국은 2024 APEC 정상회의 개최국)

【대만, 인도 : 지경학적으로 중요하나 참여 불투명】

국가	진행 상황 및 반응
 대만	<p>대만을 포함할 경우 IPEF가 反중연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IPEF 참여국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의 존 덩 경제부장은 USTR 타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IPEF 가입을 강하게 희망함을 전달.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대만의 IPEF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 (2022. 4) - 그러나 Tai 대표는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로는 인정하지만 IPEF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22.3) - 단, 미-대만 경제번영파트너십대회(EPPD, `21.11)을 개최,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 경제 위기 극복, 디지털경제, 5G네트워크 안보,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안보와 회복력을 강조함
 인도	<p>인도는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IPEF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행중인 對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 도입하는 등 행보를 보임 - 또한 인도는 과거 8년여의 RCEP 협상 후 파기 전력도 있어 협상 파트너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 - Daleep Singh 국가 안보보좌관은 인도를 방문,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IPEF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22.4) - 인도 모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IPEF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22.4)

【기타 : 캐나다, 멕시코,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국가	진행 상황 및 반응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통상부 장관 Mary Ng는 타이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IPEF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특히 디지털 무역 협력에 대한 참여를 희망함 *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의 DEPA와 같은 디지털 협정 체결 희망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의 IPEF에 대한 참여 희망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미국도 멕시코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단 멕시코는 인도와 무역, 투자에 대한 활성화 추진 멕시코 외교부 장관 Marcelo Ebrand는 인도 Jaishanker 외무장관과 양자간 협력 UN 및 G20 - 4월 1일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헬스케어, 기술이전에 관한 논의 진행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들과 미국 모두 공식적 입장은 없으나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초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단,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브루나이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

※ 참고 : 美인도태평양 전략 및 IPEF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부 입장】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표명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보고서가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좋지 않은 의도"라고 비난(22.2)

*원문 : "居心不良(심보가 불량하며), 来者不善(오는 자가 선량하지 않다)", 并试图渲染“中国威胁”(게다가 중국을 위협하는 큰 그림이다)

◆ IPEF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언급(지정학적 견제 지양), 단 대만의 가입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출

-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IPEF 가입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지역 협력 체제는 역내 국가간 평화와 발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개방, 투명성, 포용의 철학을 구현해야 함. 또한 평등, 상호 존중, 상호 신뢰 및 호혜를 존중하여 타인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아시아태평양은 지정학적 경쟁을 위한 체스판이 아니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역임을 명심해야 함" 이라고 의견 표명(22.5)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실 대변인은 美상원의원들이 대만을 IPEF의 참여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대만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함. 또한 중국은 대만이 경제 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이고 따라서 대만의 참여는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언급(22.4)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주적 거버넌스 강조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Prak Sokhonn 캄보디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대립을 도발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하고 저항해야 함. 또한 'Asian Moment'를 확보하고 아시아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할 것을 촉구(22.5)

【학계, 싱크탱크 및 언론】

◆ 중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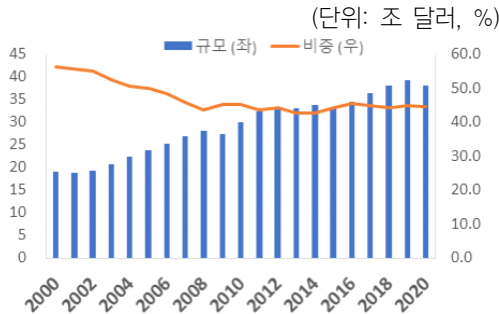
- 'IPEF에 대한 공산당의 깊은 우려' (에포크타임스(大纪元)중문판 평론, 22.4)
 - 공산당이 국제적으로 이념과 경제 측면에서 소외당할 것, 핵심기술 공급망 보안유지를 위해 미국지배 하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 미국의 IPEF가 세계 안정과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21세기 경제일보(21财经) 사설, 22.2)
 - IPEF는 미국이 RCEP와 CPTPP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익에 복종하도록 하는 수단이며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임
- IPEF는 아세안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환구망, 중국사회과학원 쉬리핑, 22.4)
 - 일대일로 관련국들은 대부분 개도국인데 동 협정에서 제시하는 환경보호 및 노동자 근로기준 등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

3 무역·투자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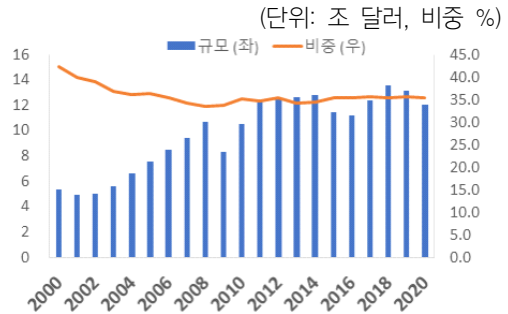
(1)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무역 현황

-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경제(GDP)의 44.8%, 무역의 35.3%, 인구의 3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 2020년 기준 인태 지역 경제규모(GDP)는 38조 1,570억 달러이며, 무역 규모는 12조 701억 달러를 기록
- 전 세계 GDP 및 무역에서 인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꾸준히 감소하다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인도태평양 지역 GDP 규모·비중>



<인도태평양 지역 무역 규모·비중>



자료: IMF,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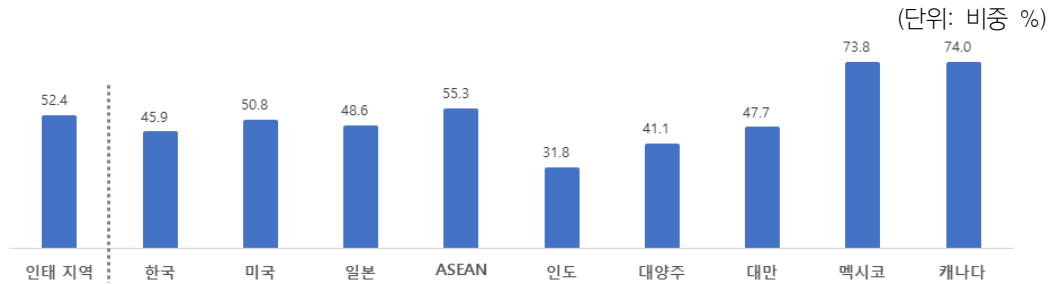
※ 본 보고서가 다루는 인태지역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아세안 6개국*, 인도, 대만, 대양주 2개국(호주, 뉴질랜드)을 비롯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며 중국은 제외

* 아세안 6개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하며, 아세안 10개국 중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는 제외

**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IPEF 등 美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상국으로 거론되지는 않으나, USMCA 및 CPTPP 등 인태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포함

- 인태 국가들의 전체 무역에서 역내 국가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74%를 기록
- 멕시코와 캐나다는 인태 역내 무역이 70%를 상회해 인태 지역이 핵심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아세안(55.3%), 미국(50.8%), 일본(48.6%) 순으로 인태 지역 역내 무역 비중이 높았음
 - 반면 인도 무역에서 인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인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 인태 국가별 역내 무역 비중 >



자료: UN Comtrade

주: 아세안, 대만 및 전체 인태 지역은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그 외 국가는 2021년 기준

□ 인태 국가 중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만, 대양주, 한국의 순서

- 대만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양주(35.3%), 한국(31.8%), 일본(26.3%), 아세안(22.6%), 미국(10.3%) 도 두 자릿수 이상의 대중의존도를 보임
-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2.0%와 5.2%에 불과하나 대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20.0%와 14.1%를 차지
- 한국의 對인태 지역 수출과 수입은 각각 47.1%, 44.7%,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1%와 22.9%를 차지

<인도태평양 국가별 수출·수입 현황>

(단위: 억 달러, 비중 %)

	對세계				對인태				對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	6,444	(100.0)	6,151	(100.0)	3,032	(47.1)	2,749	(44.7)	2,004	(31.1)	1,409	(22.9)
미국	17,531	(100.0)	29,330	(100.0)	9,246	(52.7)	14,551	(49.6)	1,809	(10.3)	5,458	(18.6)
일본	7,571	(100.0)	7,723	(100.0)	4,056	(53.6)	3,376	(43.7)	1,993	(26.3)	1,868	(24.2)
아세안	13,491	(100.0)	12,247	(100.0)	7,481	(55.4)	6,707	(54.8)	3,049	(22.6)	3,000	(24.5)
인도	3,948	(100.0)	5,704	(100.0)	1,420	(36.0)	1,645	(28.8)	343	(8.7)	1,057	(18.5)
대양주	3,868	(100.0)	3,110	(100.0)	1,477	(38.2)	1,392	(44.7)	1,365	(35.3)	854	(27.4)
대만	3,472	(100.0)	2,874	(100.0)	1,535	(44.3)	1,494	(52.0)	1,522	(43.8)	651	(22.7)
멕시코	4,946	(100.0)	5,066	(100.0)	4,170	(84.3)	3,214	(63.5)	99	(2.0)	1,015	(20.0)
캐나다	5,009	(100.0)	4,885	(100.0)	4,132	(82.5)	3,192	(65.3)	258	(5.2)	687	(14.1)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주1: 아세안, 대만은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그 외 국가는 2021년 기준

주2: 중국은 홍콩 통계까지 포함한 수치

주3: 아세안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6개국 대상

□ 한국의 對인태 국가별 무역 비중은 아세안(13.9%), 미국(13.4%) 일본(6.7%), 대만(3.8%), 대양주(3.7%) 순임

○ 한국의 對인태 수출대상국 중 아세안 6개국으로의 비중이 16.7%로 가장 높았고, 미국(14.9%)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미국(11.9%)이 아세안 6개국(10.9%) 비중을 상회

- 일본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수출 비중(4.7%)에 비해 수입 비중(8.9%)이 크게 높음

<한국의 對인태평양 무역 현황(2021년 기준)>

(단위: 억 달러, 비중 %)

	무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세계	12,595	(100.0)	6,444	(100.0)	6,151	(100.0)
인태 지역	5,781	(45.9)	3,032	(47.1)	2,749	(44.7)
아세안(6)	1,745	(13.9)	1,077	(16.7)	667	(10.9)
미국	1,691	(13.4)	959	(14.9)	732	(11.9)
일본	847	(6.7)	301	(4.7)	546	(8.9)
대만	478	(3.8)	243	(3.8)	235	(3.8)
대양주(2)	461	(3.7)	117	(1.8)	345	(5.6)
인도	237	(1.9)	156	(2.4)	81	(1.3)
멕시코	192	(1.5)	113	(1.8)	79	(1.3)
캐나다	131	(1.0)	67	(1.0)	64	(1.0)
중국	3,413	(27.1)	2,004	(31.1)	1,409	(22.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대중국 무역통계에 홍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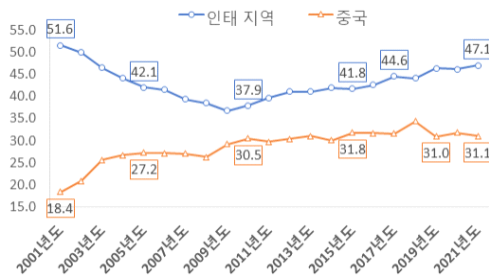
□ 한국의 對인태 무역에서 수출 비중 증가가 수입 비중 증가에 비해 두드러짐

○ 對인태 수출 비중은 2015년 41.8%에서 2021년 47.1%까지 5.3%p 증가했고, 동기간 수입 비중은 41.1%에서 44.7%까지 3.6%p 증가

- 반면 對중국 수출은 2015년 이후 31%대에 정체된 반면 수입은 21.0%에서 22.9%로 1.9%p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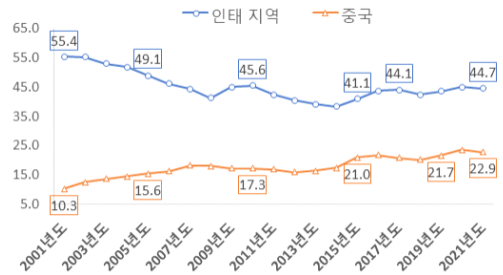
<한국의 對인태·對중국 수출>

(단위: 비중 %)



<한국의 對인태·對중국 수입>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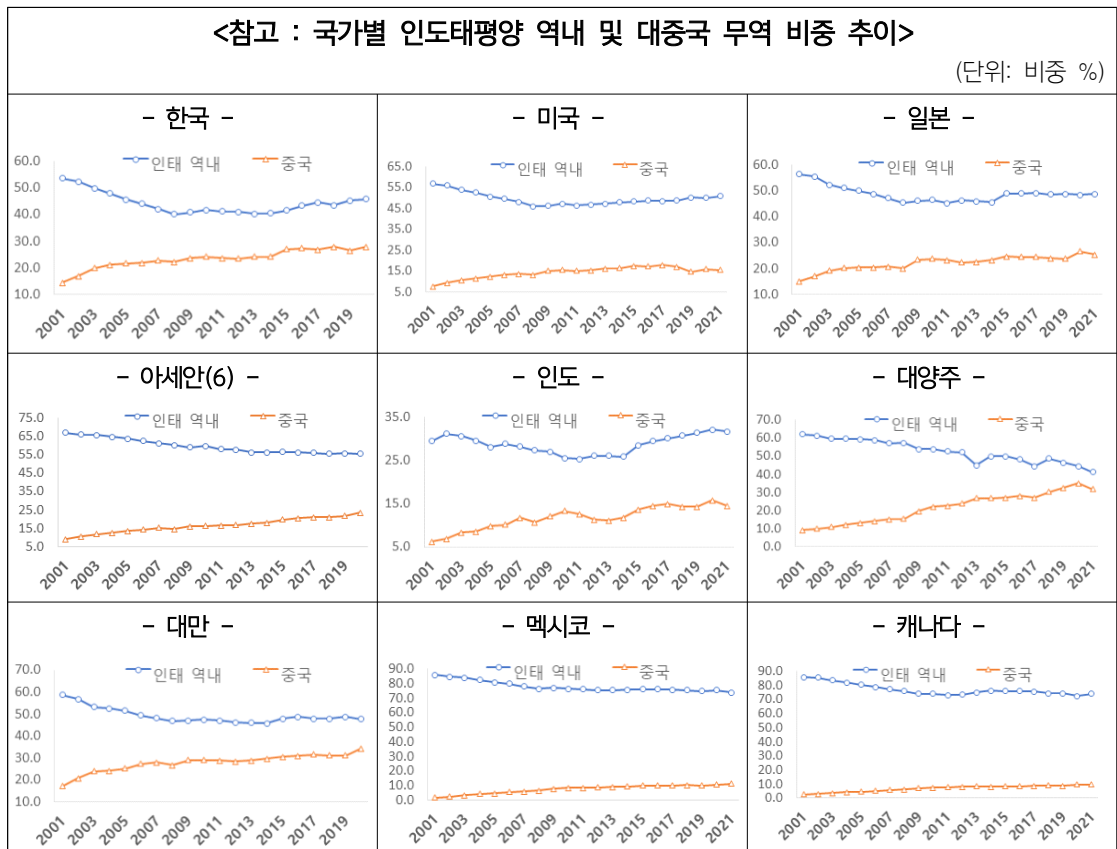


자료: UNCTAD

□ 대부분 국가들의 대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역내 무역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인도의 경우 인태 역내 무역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소폭 상승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비중이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인태 역내 무역은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
-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및 고율의 관세 부과 여파로 2017년 이후 중국의 비중이 감소세에 있으며, 인도도 인태 역내 무역의 증가세가 크게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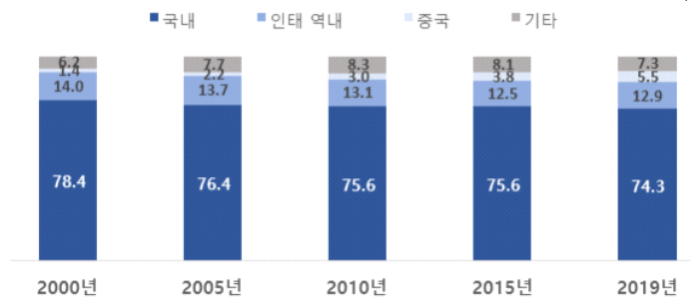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 인태 지역 총 수출(부가가치 기준)에서 인태지역의 비중이 중국 보다 높으나,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인태 지역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4%에서 2010년 3.0%, 2019년 5.5%까지 증가
 - 인태 지역 수출에서 중국이 기여한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동시에 인태 지역 수출로 인해 창출된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인태 지역내 비중은 2015년까지 12.5%로 감소하다 2019년 12.9%로 반등

< 인태 지역의 수출에서 지역별 기여 현황 >

(단위: 비중 %)



자료: UNCTAD-Eora GVC Database

주: 분석 방법론은 일본의 아세안-일본 센터(ASEAN-JAPAN CENTRE) 'Global Value Chains in ASEAN' A Regional Perspective'(19.1) 보고서를 참조

○ 인태 주요국별 수출에서도 중국이 기여한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의 총수출 가운데 인태 역내 기여분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18.7%에서 2019년 12.7%까지 감소한 반면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은 7.4%에서 9.4%로 증가
- 다른 인태 주요국에서도 중국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태 지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총 수출 중 인태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5년 5.4%에서 2019년 5.6%로 증가했으며, 일본의 경우 2010년 7.5%에서 2019년 8.8%로 증가

< 인태 국가의 수출에서 지역별 기여도 변화 >

(단위: 비중 %)

	한국			미국			아세안(6)			인도			일본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2010	2015	2019
국내	59.8	63.4	69.4	86.5	86.6	87.0	61.3	63.4	61.9	85.5	84.9	85.5	83.8	80.1	79.6
인태	18.7	15.8	12.7	5.6	5.4	5.6	22.4	20.5	20.8	4.6	4.6	2.8	7.5	8.8	8.8
중국	7.4	7.9	9.4	1.1	1.5	2.3	5.1	6.0	8.1	1.8	2.5	5.1	2.6	3.9	4.3
기타	14.0	12.8	8.5	6.8	6.5	5.1	11.2	10.1	9.2	8.1	8.0	6.6	6.1	7.2	7.2

자료: UNCTAD-Eora GVC Database

(2)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 중국의 무역에서도 인태지역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중국으로서도 인도태평양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

- 중국 무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르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0%,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4%로 나타남

<대상 국가별 중국의 무역 현황(2021년 기준)>

(단위: 억 달러, 비중 %)

	무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세계	68,490	(100.0)	36,972	(100.0)	31,519	(100.0)
인도태평양	33,881	(49.5)	17,161	(46.4)	16,720	(53.0)
한국	3,810	(5.6)	1,452	(3.9)	2,358	(7.5)
아세안	9,205	(13.4)	4,597	(12.4)	4,609	(14.6)
미국	7,545	(11.0)	5,610	(15.2)	1,936	(6.1)
일본	3,922	(5.7)	1,666	(4.5)	2,256	(7.2)
대만	3,879	(5.7)	898	(2.4)	2,981	(9.5)
대양주	2,453	(3.6)	727	(2.0)	1,727	(5.5)
인도	1,422	(2.1)	1,054	(2.9)	368	(1.2)
멕시코	847	(1.2)	664	(1.8)	182	(0.6)
캐나다	797	(1.2)	494	(1.3)	304	(1.0)

자료: UN Comtrade, ITC Trademap(중국 2021년)
주: 홍콩까지 포함한 수치

- 중국 무역 내 인태 지역의 비중은 2013년 45.2%에서 2021년 49.5%까지 최근 10여 년간 증가세를 이어옴

- 다만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의 무역은 2010년에 비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태 지역의 비중 증가는 주로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 증가에 기인(아세안 비중: 2010년 9.8% → 2021년 13.4%)

<중국의 對인도태평양 교역 비중 추이>

(단위: 비중%)



자료: UN Comtrade
주: 홍콩까지 포함한 수치

<중국의 인도태평양 국가별 교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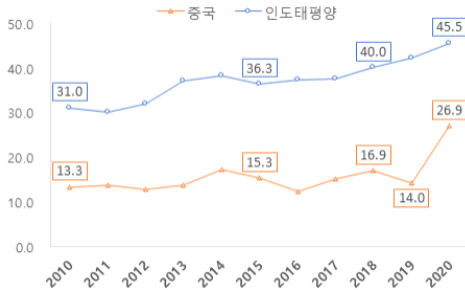
(단위: 비중 %, %p)

	2010년 (A)	2015년	2021년 (B)	(B)-(A)
인도태평양	48.5	47.9	49.5	1.0
한국	6.1	6.1	5.6	-0.5
미국	11.9	12.6	11.0	-0.8
일본	9.3	6.6	5.7	-3.6
아세안(6)	9.8	11.2	13.4	3.7
인도	2.1	1.9	2.1	0.0
대양주	2.7	2.7	3.6	0.9
대만	4.8	4.6	5.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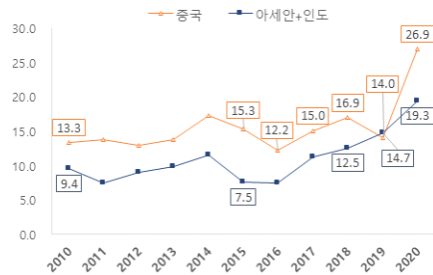
□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로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2010년 31% → 2015년 36% → 2020년 46%) 중국향 투자 비중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비교적 정체
 - 특히 아세안 및 인도향 투자 비중이 2015년 7.5%에서 2020년 19.3%로 크게 증가
 - 2020년 중국향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가장 먼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난 중국이 빠르게 생산 재개에 돌입한 영향으로 추정

<국가별 FDI 유입 비중 (중국, 인도태평양)>
(단위: %)



<국가별 FDI 유입 비중 (중국, 아세안+인도)>
(단위: 비중 %)



자료: UNCTAD

- 전 세계 상위 투자 국가에서도 아세안과 인도로의 투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으로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 UNCTAD 2020년 저량(Stock) 기준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일본(5위), 캐나다(7위), 싱가포르(11위), 한국(18위) 순
 - 반면 대중국 투자 비중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임

<주요국별 신흥국 투자 추이>

(단위: 비중 %)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미국	중국	2.9	2.5	2.7	3.1	3.0	3.0	3.3	3.4	3.5	-
	아세안+인도	4.0	5.4	4.5	6.5	6.1	6.4	5.7	6.1	6.0	-
일본	중국	5.5	8.1	9.9	10.6	10.1	9.6	9.5	8.9	9.1	-
	아세안+인도	9.2	10.6	12.5	14.2	13.5	14.4	15.2	15.4	15.2	-
캐나다	중국	1.2	1.0	1.7	1.7	1.7	1.8	1.8	1.7	2.3	2.5
	아세안+인도	2.1	1.7	1.2	1.1	1.1	1.2	1.3	1.2	1.4	1.5
싱가포르	중국	24.8	21.3	22.8	24.2	23.1	22.7	22.9	20.6	20.4	-
	아세안+인도	23.8	23.2	23.8	23.5	23.5	24.5	25.9	24.3	23.8	-
한국	중국	22.5	29.7	27.8	23.5	22.1	21.4	20.9	20.1	18.9	17.5
	아세안+인도	15.8	12.4	12.9	14.1	14.0	13.8	14.0	14.3	14.7	14.4

자료: 각국 정부기관

주: 저량(Stock) 기준으로 투자 비중 계산

□ 인태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 역내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 위주의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말레이시아도 일부 후공정(테스트·패키징)을 담당
 - 미국은 전 공정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생산,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생산, 일본은 제조 장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각종 전자제품 및 기기의 조립 및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세안과 인도는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로서 의미가 있음

<반도체 공정단계별·지역별 비중>

	설계		
	시스템	메모리	총계
1위	미국 (65.1%)	한국 (56.7%)	미국 (57.2%)
2위	대만 (15.1%)	미국 (28.3%)	한국 (19.1%)
3위	한국 (5.1%)	일본 (8.6%)	대만 (7.0%)
4위	중국 (4.6%)	대만 (4.3%)	유럽 등 (6.8%)
	제조장비	웨이퍼 생산능력	후공정
1위	미국 (38.9%)	대만 (21.4%)	대만 (52%)
2위	일본 (23.2%)	한국 (20.4%)	중국 (21%)
3위	네덜란드 (18.3%)	일본 (15.8%)	미국 (15%)
4위		중국 (15.3%)	한국 (6%)
5위		북미 (12.6%)	말련·싱가포르 (5%)

자료: (설계)OMDIA('20.12)(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리포트 17호(2020년) 재인용), (장비)VLSI Research (2020)(유진투자증권 재인용), (웨이퍼 생산능력) IC Insights(2020)(anysilicon 재인용), (후공정) Yole Development(2020)

- 주: 1) 반도체 제조기업의 본사와 제조 지역 간 차이가 큰 관계로 실제 제도가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웨이퍼 생산능력은 국가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와 비중 산정. 그 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2)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매출 상위 15위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로 국가별 실제 비중과 상이할 수 있음

□ 인도와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신흥국은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중요한 소비 시장 및 생산처로 성장할 전망

- 2022년부터 인도와 아세안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인도	-6.6	8.9	8.2	6.9	7.0	7.0	6.5	6.2
아세안(5)	-3.4	3.4	5.3	5.9	5.6	5.3	5.3	5.1
인도네시아	-2.1	3.7	5.4	6.0	5.8	5.4	5.3	5.2
말레이시아	-5.6	3.1	5.6	5.5	4.9	4.4	4.4	3.9
베트남	2.9	2.6	6.0	7.2	7.0	6.9	6.8	6.7
태국	-6.2	1.6	3.3	4.3	3.8	3.3	3.2	3.1
필리핀	-9.6	5.6	6.5	6.3	6.5	6.5	6.5	6.5
중국	2.2	8.1	4.4	5.1	5.1	5.0	4.9	4.8

자료: IMF(2020.4)

주: IMF는 개별 국가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공

- 인도 인구는 올해부터 14억 명을 돌파하고 2024년부터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됨
- 아세안 6개국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2023년부터는 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신흥국 인구 전망>

(단위: 억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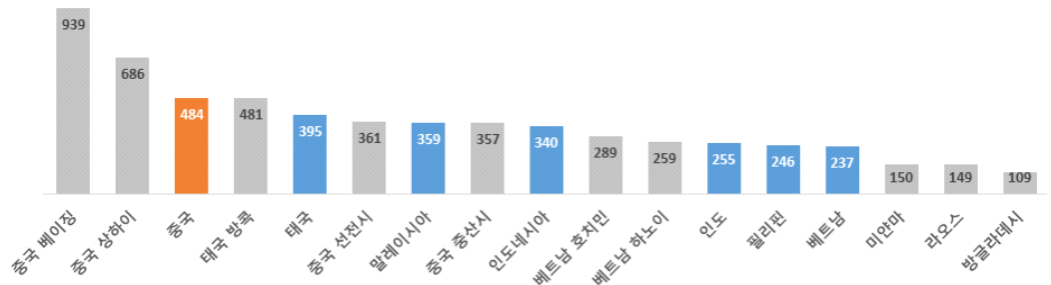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인도	13.8	13.9	14.1	14.2	14.3	14.4	14.6	14.7
아세안(6)	5.8	5.9	5.9	6.0	6.1	6.1	6.2	6.2
중국	14.2	14.2	14.2	14.2	14.2	14.2	14.1	14.1

자료: IMF(2020.4)

- 그 밖에 낮은 인건비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 공장으로서 부상할 가능성도 큼

<2020년 아시아 국가별 제조업 노동자 인건비(중간값)>

(단위: 달러/월)



자료: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2021.5)

4 결론 및 시사점

-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 중 35.2%가 해당 지역에 거주, 세계 GDP의 44.8%, 글로벌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
 - 2021년 한국 수출에서 인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이며, 이는 2015년의 41.8%에서 5.3%p 증가한 것
 - 對중국 수출이 동기간 31%대에 정체되었음을 감안했을 때 더욱 의미가 큼
 - 최근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크게 늘고 있어(전세계 비중/ 2015년 7.5%→2020년 19.3%)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 또한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 및 생산처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의 예와 같이 인태 지역내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협력체계가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현 정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EPN(경제번영 네트워크), QEUA+, BDN(블루 닷 네트워크) 등을 볼 때, 미국의 인태 지역내 경제협력 기반 마련 전략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IPEF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공화당의 지속적 비판과 견제는 IPEF 추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IPEF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이 제외된 '소극적' 무역협정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집권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를 가정해 IPEF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 의회가 공화당 주도로 민주당 행정부의 IPEF에 제동을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아 바이든 정부 후반기에도 IPEF 추진은 지속될 전망
 - 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IPEF에 지속적 비판을 가할 경우, 협상 참여국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2년 뒤 정권이 교체될 경우 IPEF 추진이 원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한 TPP에서 탈퇴

-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쉽게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약점도 존재

□ 5월중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IPEF 추진에서 참여국의 숫자도 주요 관건이며, 참가가 확실시 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에 ASEAN, 대만, 인도의 참여가 중요

- ASEAN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자국내 정치·사회 상황,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對중국 무역 의존도, 자국 노동·인권 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특히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으로 대변되는 외부 영향력이 아닌 아세안 스스로의 결정권을 반영한 의사결정 추구도 미정부가 설득해야 할 부분
- 인도와 대만은 현 시점에서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나, 인태 지역에서 큰 지경학적 의미를 지녔기에 향후 참여 여부를 주목해야 함

□ 최근 미-중 경쟁구도의 변화를 감안할 때, 극단적 힘겨루기 및 편가르기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現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경제 기조를 이어가되, 보다 ‘관리되고 신중한’ 접근을 지향하고 있음
- 1단계 무역합의의 중국 불이행에 대해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추가 관세부과를 통한 제재 가능성도 높지 않음
- * 블린컨 美국무장관은 2021년 3월 NATO 본부 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 임을 언급

- IPEF은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인도태평양의 경제적 영향력, 지경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 연속성, 그리고 절제된 최근 미-중 경쟁 구도를 감안한다면, IPEF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대인태 경제협력은 지속될 전망

- 시장접근 차원 보다는 공급망, 가치중심적 경제협력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부록

<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주요 내용 : 5대 인도태평양 전략 >

- 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각 정부의 자율성 보장, 법치주의 확보, 정보 공유/언론/미디어의 자유 보장, 부패 방지, 재무 투명성,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개방과 안전 확보. 지역의 개방성과 접근 가능성 확보, 해상, 상공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관리됨. 남중국해, 동중국해에도 법치주의 접근
- ② **지역내·지역외 연계 (Build Connections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 5개 지역내 동맹(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강화, 지역내 관계 증진(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군도), 한·일관계 강화, QUAD(4자 안보대화/미국, 일본, 인도, 호주) 활용 제고,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지 지, EU/NATO 와의 협력 확대
- ③ **지역의 번영 (Drive Indo-Pacific Prosperity)**
: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을 통해 기술 전환(디지털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높은 노동/환경 기준 기반 무역, 공개된 기준에 맞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공유, 공급망 안보 구축, 탄소절감,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APEC 협력을 통한 공정자유무역환경 조성. G7과 B3W(Build Back Better World)사업을 통해 인프라 지원
- ④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Bolster Indo-Pacific Security)**
: 우주, 사이버공간, 기술 분야에 대한 군사 기능 혁신, 동맹국들과 군사 연계 강화 및 현대화(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대만 안보 강화, 북한 비핵화 및 인권 대응. 인도와의 동맹 확대, 대만의 안보 지원, AUKUS 파트너십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일 협조
- ⑤ **21세기 국제적 위협에 대한 지역의 회복력 제고 (Build Regional Resilience to 21st Century Transnational Threats)**
: 환경변화 공동 대응(2030, 2050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 설정,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Clean Edge' 등 이니셔티브를 통한 친환경 기술 투자. WHO, G7, G20, ASEAN, APEC, Pacific Islands Forum 협력 강화

*출처 : 백악관 "Indo-Pacific Strategy"(2022.2)

참고자료

[국문 문헌]

- 강선주 (2018),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 공민석(2018),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경숙 (202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협력 : 동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양희 (2022), “RCEP, CPTPP,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외교안보연구소
- 민정훈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외교안보연구소
- 최윤정 (2022),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세종연구소
- 최윤정 (2022),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과제 :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세종연구소
- 최인아 외 (202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 문헌]

- Matthew P. Goodman 외 (2022),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SIS Briefs
- Kenneth G. Lieberthal (2011) “The American Pivot to Asia”, Brookings

[해외 정부/기관문서]

- ASEAN (2019), “ASEAN outlook on Indo Pacific”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Biden Administration Plans for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2018), “U.S. Strategic Framework on the Indo-Pacific”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M. Raimondo Highlights Key 2021 Departmental Accomplishments”.
- U.S. Department of State (2019),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Adv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Global Partnership”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U.S. Department of State (2019),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te House (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 (2021),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White House (2021),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White House (2021), "Fact Sheet :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Launch Build Back Better World (B3W) Partnership"

White House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hite House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2), "The Biden-Harri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Secure Critical Supply Chains in 2022"

주한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2021), "미국의 동맹 재확인 및 재구성",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연설문

[국가별 입장 출처]

한국

"미 통상장관 10년만에 방한...공급망·디지털 협력 논의 주목", 연합뉴스, 2021. 11. 15

"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4. 1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4. 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인수위원회, 2022. 5. 3

일본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Perspective from Two Ambassadors," CSIS, May 9, 2022

Readout of Secretary Raimondo's Meeting with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agiuda Koichi of Japan, May 4, 2022

"Japan seeks quick start to U.S.-le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Nikkei press,

May 6, 2022

Readout of President Biden’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The White House, January 21, 2022

Joint Statement between Department of Commerce Secretary Gina Raimondo and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er Hagiuda Koichi, US Department of Commerce, November 15, 2021

호주

“Trade Minister holds 5th Korea–Australia FTA Joint Committee Meetin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pril 7, 2022

Joint Statement – Inaugural Australia–U.S. Strategic Commercial Dialogue (AUSSCD), 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 March 30, 2022

“Readout of Ambassador Bianchi’s Third Day in Australia,” USTR, March 16, 2022

“Trade Minister to represent New Zealand at key Indo–Pacific economy and multilateral trade meetings”, November 15, 2021

뉴질랜드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s Speech to New Zealand US Business Summit, May 2, 2022

Trade Minister to represent New Zealand at key Indo–Pacific economy and multilateral trade meetings, November 15, 2021

Prime Minister Jacinda Ardern’s Speech to New Zealand US Business Summit, May 2, 2022

싱가포르

Joint Press Release On New Collaborations Under The U.S.–Singapore Partnership For Growth And Innovation (PG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arch 30, 2022

Joint Ministerial Statement by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and US on the IPEF,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November 17, 2021

말레이시아

“Readout of Ambassador Katherine Tai’s Meeting with Malaysian Senior Minister and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ohamed Azmin Ali,” USTR, May 10, 2022

“Korea and Malaysia hold trade talks on CPTPP and stronger supply chain cooper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pril 19, 2022,

Joint statement by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and Malaysian Senior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ohamed Azmin Ali, November 18, 2021

“Launching Ceremony of Foreign Policy Framework 7 December 20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December 7, 2021

Twitter, Mohamed Azmin Ali, May 11~13, 2022

인도네시아

“Readout of Ambassador Katherine Tai’s Meeting with Indonesian Minister of Trade Muhammad Lutfi,” USTR, May 11, 2022

“Pertemuan Mendag RI dengan Mendag, Industri dan Energi Republik Korea,” Indonesia Ministry of Trade, April 11, 2022

“Indonesia welcomes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Indo-Pacific, director general says”, December 15, 2021

“How Indonesia Sees the Indo-Pacific Economic Architectur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November 6, 2021

베트남

“Readout of Ambassador Katherine Tai’s Meeting with Vietnam Prime Minister Pham Minh Chinh,” USTR, May 12, 2022,

“Vietnam leader interested in Biden economic framework, but needs to study details,” Reuters, May 12, 2022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guyen Hong Dien held a phone conversation with New Zealand's Minister of Trade and Export Growth Damien O'Connor,”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arch 18, 2022

China-US rivalry: how Vietnam's deft balancing act keeps it from having to pick sides,”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18, 2021

“Vietnam faces tricky balancing act as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s,” VN Express, January 2, 2022

필리핀

“PH, US reaffirm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Philippin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pril 19, 2022

“PH, US Dept, of Commerce discuss strengthening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hilippin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pril 21, 2022

태국

“Senators hit back at US criticisms,” Bangkok Post, December 8, 2020

“Can US Assistance Reinvigorate the US-Thai Alliance,” East-West Center, November 23, 2021

“냉전시대와 달리 美·中·러 사이 줄타기하는 나라 급증”, Newsis, 2022. 4. 25

“The Apparent Stalemate in Thailand's Deep South”, The Diplomat, December 20, 2021

대만

“Taiwan, US hold high-virtual talk to discuss bilateral trade”, Overseas Community Affairs Council, Republic of China (Taiwan), April 20, 2022

“US Trade chief Tai declines to say if Taiwan will be part of Indo-Pacific pact”, Reuters, April 1, 2022

“Taiwan expresses interest in proposed US led trade pact,” Focus Taiwan, December 8, 2021

“2021 US–Taiwan Economic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 November 23, 2021

“Taiwanese, US officials hold five-hour virtual economic dialogue,” November 23, 2021

인도

“Our two-speed ties with the US need convergence,” Mint press, May 2, 2022

Readout of Senior Administration Travel to India, The White House, April 1, 2022

“러 '제재 탈출구' 자처한 인도…루블·루피 결제시스템 도입”, 한국경제, 2022. 3. 18

멕시코

Conversación telefónica entre el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r. S. Jaishankar y el Secreta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México, Marcelo Ebrard Casaubon, Indian Embassy in Mexico City, January 19, 2022

Foreign Secretary Marcelo Ebrard concludes his tour of the Middle East and Ind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pril 1, 2022

중국

“State Council Taiwan Affairs Office: China Opposes Taiwan to Participate In Any Economic Arrangement With Governmental Official Characteristics,” April 13, 2022

“What is US’ IPEF Anyway”, People Daily, March 19, 2022

“Biden’s IPEF Is Not A FTA”, China–US Focus, February 16, 2022

“IPEF for ASEAN Countries: Co-Existence of Opportunities and Risks”, The Paper, April 17, 2022

“Seize the ‘Asian moment’, China tells Cambodia ahead of US–Asean summit,” SCMP, May 9, 2022

“IPEF에 대한 공산당의 깊은 우려 王赫：「印太經濟框架」是中共的深憂” 에포크타임스(大纪元) 중문판 평론, 2022. 4. 20

“미국의 IPEF가 세계 안정과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警惕美国“印度-太平洋经济框架”对全球稳

- 定发展的不利影响“ 21세기 경제일보(21财经) 사설, 2022. 2. 25
- ”쉬리핑: IPEF는 아세안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许利平: 印太经济框架在东盟难如愿“ 환구망
(环球网), 2022.04.11
- ”대만 당국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으며 IPEF 참여를 기대했지만 미국이 찬물을 끼얹었다 妄想参与IPEF却被美国泼冷水, 学者: 民进党当局高估了自我重要性“ 해협도보(海峡导报),
2022. 4. 17
- ”미국 주도 IPEF가 시작되려 한다 "중국을 포함할 의도가 없다“美官员: 印太经济框架即将启动
“不打算让中国参与”“ rfa자유아시아언론 (自由亚洲电台), 2022. 2. 17

KITA

TRADE REPORT

2022

